

남·여 대학생의 『~답다』에 대한 성 역할 자각에 관한 연구
-頭髮, 신발, 裝身具를 중심으로-

한 명숙·하희정†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겸임교수

A Study of the Sex-role Perceptions
Reflected upon the Term "Be Like ~"

Myung-Sook Han and Hee-Jung Ha†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3. 6. 3. 접수 : 2003. 9. 13. 채택)

Abstract

This study defines attributes of the Korean costume culture, focussed on hair, shoes and accessories which express sex-roles, encapsulated in the term, "be like...". A group of 362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from Seoul and Gyeonggi area was surveyed for the stud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SPSS 10.0 was applied for analyzing the data, and the significant variances were reviewed by the basic statistics and t-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hort hair is perceived as the typical hair style that symbolizes male, both from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Hair colors in warm color such as brown, wine, purple, lemon and orange, and the style of hair such as bobbed, long, and perm are perceived as definite clues that symbolized female. Second, when it concerns the types of shoes, both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ited oxford as the typical clue that symbolizes male, whereas pumps and sandal were cited for female. Third, in terms of types of accessories, both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necklace, earring, bracelet, hair pin and band, scarf, and muffler as very feminine. Among these, hair pin and band, and scarf are evaluated as the typical clues that signify the role of females. Necktie is perceived as the typical clue that signify male role.

Key words: be like(답다), feminine(여성), masculine(남성), sex-role(성역할).

I. 서론

두발(頭髮), 신발, 장신구(裝身具)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의복과 공존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고, 의미와 감정을 형태화해서 그 당시의 기후나 시대상 또는 생활상을 반영해왔다. 즉 특정의 두

발, 신발, 장신구를 선택하여 착용했다는 것은 착용자의 心理가 作用한 상태이고, 심리적으로 만족, 불만족 또는 好惡 등의 표현은 개인의 특성이 작용하지만,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社會 心理的인 影響을 反映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복식은 의복과 함께 頭髮, 신발, 裝身具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였고,

† 교신저자 E-mail : hjha@hanafos.com

이러한 성 역할 차이는 衣服, 頭髮, 신발, 裝身具 형태의 차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 복식에서는 성 역할 차이의 감소에 따른 변화로 인하여 남·여 복식에 대한 뚜렷한 구별도 서서히 없어지고 있고, 성 역할의 상징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복식 단서도 변화하고 있다.

현대 복식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과 차별화해서 자신만의 개성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대 복식이 요구하는 다양화·개성화 시대에 頭髮, 신발, 裝身具는 의복의 분위기나 아름다움을 살려주기 위한 추가적인 요소로서 의복에 변화를 주고, 복식의 의미를 다양하게 나타내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頭髮 형태와 毛髮 색상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의복도 신발, 裝身具에 따라 그 의미나 분위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頭髮, 신발, 裝身具는 의복에 변화를 주는 종속적인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주체적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頭髮은 頭髮의 형태와 毛髮의 색상을 포함하고, 신발은 샌들에서 부츠까지 발을 감싸는 신발 유형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裝身具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와 안경, 머리핀과 머리띠, 벵타이와 스카프, 머플러를 포함한다.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頭髮 형태와 毛髮 색상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의복도 신발, 裝身具에 따라 그 의미나 분위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頭髮, 신발, 裝身具는 의복에 변화를 주는 종속적인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주체적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식에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특정한 의모나 행동 또는 복식에 대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전형적인 특성들을 의미하며, 양성이 어떻게 다르냐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여의 성 차이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화 과정에서 결정된 성 역할은 남·여에게 적합한 복식 형태를 요구하거나 제안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답다』에 내재된 한국 복식 문화의 속성에 관한 연구 I-의복에 표현된 성 역할을 중심으로-”¹⁾에 이어, 우리가 일상 착용하고 있는 頭髮, 신발, 裝身具에서 「~답다」라는 고정관념²⁾은 어떻게 나타나며, 남·여 대학생들은 이러한 단서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단서는 頭髮, 신발, 裝身具의 대표적 유형들을 선정하여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별 두발, 신발, 장신구에 대한 남·여 대학생들의 성역할 지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한다.

둘째, 頭髮, 신발, 裝身具의 세부적 단서에 나타난 남·여 대학생들의 성역할 지각이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규명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성 역할에 대한 頭髮, 신발, 裝身具의 본질적인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식의 표현·정보 기능

복식에서의 표현 기능은 착용자의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매우 가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식은 착용 상태가 그대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착용자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

Emily Cho & Linda Grover³⁾는 복식에 대해 아름답건 그렇지 않건 간에 타인을 보는 개인의 첫 판단은 感情的이고 美的인 것이 우선으로, 論理的이고 說得的인 것과 知的인 평가는 그 후에 온다고 하였으며,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복식은 한 번 착용하면, 지속적으로

1) 한명숙, “『~답다』에 내재된 한국 복식 문화의 속성,” 복식문화연구, 11권 1호 (2003), pp. 88-102.

2) “『~답다』에 내재된 한국 복식 문화의 속성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답다」라는 접미사가 체언에 붙으면, 대체적으로 앞에 있는 체언에 대해 그 문화·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기준을 설명한다. 복식과 연결시키면 <~다운 스타일>로 표현될 수 있고, 性과 결부시키면, <여자다운 스타일>, <남자다운 스타일>등으로 표현되어 성역할의 상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Emily Cho and Linda Grover, *Looking Terrific : Express yourself through the Language of Clothing*, (New York: G.P. Putnam's sons. 1978), p. 20.

로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말보다 더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

정보 기능은 論理的 또는 認知的 意味인 概念的 意味로서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는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복식에서의 정보 기능은 복식의 입은 형태가 눈에 띄어 인지되는 내용⁴⁾을 말한다. 이를 테면, 모발의 길이가 짧은지 긴지, 또는 모발의 색상이 무엇인지 등으로 복식의 형태 중에서 실질적인 물체가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의 인지적인 측면을 정보기능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에게서 착용한 복식이 어떠한 복식 품목들로 구성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또 보여줌으로써 그 품목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정보기능이라는 것이다. 또한 복식은 입은 그 자체의 形態로서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 즉 성, 연령, 직업, 교육정도, 가치관, 인성, 미적방향, 관습, 분위기 등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의복 단서나 상징에 기초한 판단의 정확성은 제시된 정보, 인지자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 각각자의 특성 및 상호 작용의 상황에 달려있다⁵⁾고 할 수 있다. Mary Ellen Roach & Joanne B. Eicher⁶⁾는 의복의 특정 용어로서의 의미는 특정 문화에서 동일시될 수 있고, 같은 사회 내에서도 복식의 유사한 형태는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 있으며, 복식의 다른 형태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같은 의미들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복식은 구조상의 형태와 함께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2. 복식의 符號와 意思傳達

「~답다」는 언어적 요소이므로 앞에 어떤 체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복식은 하나의 품목 형태에 따라서, 또는 그 품목들의 조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의사 전달을 위한 복식행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착용자나 인지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복식의 규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규칙은 언어에서와 같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설정할 수 없는 사회적 규약 같은 것이어서, 이 규약을 준수하고 또 그것에 의거함으로써만 의사전달이라는 복식행동의 목표가 달성된다.

동일 복식 공동체의 구성원 속에 내재화되어 그들의 복식행동을 지배하고 가능하게 하는 규약으로서의 복식 규칙의 총체로, 이 규칙은 잠재적 복식 요소의 총체적 목록(복식 사전에 기록된 복식 종류와 그 의미의 총체)과 요소의 사용 규칙을 포함한다⁷⁾. 이것이 바로 랑그(langue)이다.

정보 전달을 위해 착용자와 인지자 사이에 미리 약정된 기호의 체계를 부호(code)라 하고 이 符號(code)에 의거하여 착용자와 인지자 사이에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나 상황을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데, 이 부호가 실현되는 의사 전달의 행위나 상황이 바로 빠롤(parole)이다. 빠롤(parole)은 재료를 이용해서 의복을 만들어 입은 상태인 외모적 수단을 통해 실제로 전달하기 위한 의미가 담긴 복식 요소의 綜合體 및 착용자가 이 복합체를 산출하고 인지자가 그 의미를 해독하는 행위, 상황의 전체가 빠롤(parole)이다⁸⁾. 따라서 頭髮, 신발, 裝身具의 형태와 색상과 같은 세부적 측면들이 랑그(langue)이며, 착용하여 표현된 頭髮, 신발, 裝身具는 빠롤(parole)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덩어리로 된 복식 단위들은 모두 낱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블라우스, T셔츠, 스커트, 바지, 구두, 귀걸이, 목걸이 등은 모두 낱말에 해당한다. 낱말의 數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낱말의 數는 복식을 착용하는 사람에 의해 그 數가 결정된다. 복식의 표현은 착용자가 복식의 단어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입느냐에 따라서 복식문장 표현에 필요한 낱말의 數가 정해지고 이러한 식으로 무한한 형태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의미를 표현해 낼 수 있다⁹⁾

4) 한명숙, "한국 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pp. 12-13.

5) Marilyn J. Horn, and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p. 196-200.

6) Mary Ellen Roach and Joanne B. Eicher. *The Visible Self: Perspective on Dres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73), pp. 109-113.

7) 한명숙, *Op cit.*, p. 52.

8) *Ibid.*, p. 53.

9) *Ibid.*, p. 99.

고 하였다.

같은 종류의 원피스를 착용했다라도 두발의 형태, 신발의 모양, 여러 가지 장신구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착용했느냐에 따라서 복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頭髮, 신발, 裝身具는 복식 전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修飾語, 즉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頭髮, 신발, 裝身具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식의 기원은 원시민족들이 신앙적인 관심에서 신체의 종교적·정신적 보호 또는 종족 상징, 계급 표시, 적에 대한 위협, 성별 표시등을 위해 피부에 채색을 하면서 문신과 체형 변형의 형태로 신체에 장식을 하기 시작했고¹⁰⁾, 최초로 사용되었던 장신구는 악령을 쫓기 위해 동물의 이빨이나 뼈로 만든 목걸이였으며, 미적 가치보다는 그들이 믿었던 미신적인 종교관에 의한 것¹¹⁾이었다.

Lennon¹²⁾은 성 역할 변화와 의복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의 외모 분석에서 남성적으로 평가된 단서는 두껍고 거친 직물, 각진 선, 어깨 패드, 각진 선, 블레이저와 같은 재킷, 셔츠 등이며, 여성적으로 평가된 단서는 레이스, 러플, 리본, 옅은 색상, 부드러운 소재 등이라고 하였다. 남성의 외모 분석에서 남성적으로 평가된 단서는 짙은 색, 넥타이, 각진 어깨 패드, 각진 선, 짧은 머리 등이었으며, 여성적으로 평가된 단서로는 보석, 보우 타이, 긴 머리, 옅은 색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에 대해 고정관념을 형성할 때, 사용되는 외모 단서 중에서 안경의 착용은 지적 능력, 근면, 의존 가능성, 금전 문제에 있어서의 정직 등의 고정관념과 관련이 있으며, 덜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신발 역시 소비자가 고정관념화된 역할 특질과 다른 특성의 무리를 사용하여 범주화하였는데, 통굽의 신발은 '젊고 캐주얼한' 범주에 속하고,

남성용 loafer는 '남성적' 범주에, 날렵한 샌달은 '여성적이고 세시한' 집단을 대표하며, 여성용의 펌프나 loafer는 '無性的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범주에 속한다¹³⁾고 하였다.

차진희¹⁴⁾는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body image, genderlogy, 의복 성정체감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성 역할 개념에 있어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이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의복 성정체감에 대한 태도는 남자 대학생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남자 대학생이 의복에 대한 태도에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복식의 세부적 단서 등을 통해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 연구는 단서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여 일련의 지각된 특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임의 표집에 의해 서울·경기 소재 대학교의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02년 5월~6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62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47부를 제외한 315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164명(52.1%), 여학생 151명(47.9%)이고,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22명(7.0%), 2학년 158명(50.2%), 3학년 102명(32.4%), 4학년 33명(10.5%)으로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자극물인 頭髮, 신발, 裝身具 품목의 선정은 예비 조사와 선행연구들¹⁵⁾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

10) 이순홍,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 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권 1호 (2003), p. 23.

11) 이경순, 김희섭,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1998), p. 167.

12) S. J. Lennon, "Clothing and Changing Sex roles: Comparis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8 No. 3 (1990), pp. 245-254.

13)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p. 236-245.

14) 차진희, "Body image, Genderlogy, 의복 성정체감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 52.

15) 이경순, 김희섭, *Op cit.*, pp. 187-208. *Fashion 전문 자료사전* (서울: 한국사전 연구사, 1997), pp. 1699-1724. 유현주, 임영주, 황영미, *토탈 뷰티 코디네이션*, (서울: 일진사, 2001), pp. 162-194. *Women's 컬러 코디네이션* (서울: 라사라패션정보, 2001), pp. 3-19, pp. 123-128. *Men's 컬러 코디네이션*(서울: 라사라패션정보, 2001), pp. 2-3, 118-119.

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頭髮은 頭髮의 형태의 주된 특징에 따라 유형을 제시하였다. 毛髮의 색상은 頭髮 형태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 같은 두발 형태라도 모발의 색상이 다르면 다르게 인지될 수 있지만, 응답의 문항이 너무 많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 응답자가 응답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毛髮의 색상은 형태를 배제한 색상만을 제시하였다. 색상의 유형은 실제 毛髮의 색상과 염색의 대표적인 색상이라 할 수 있는 black, brown, wine, purple, green, blue, lemon, orange를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신발은 운동화에서부터 pumps, sandal, loafer, boots에 이르기까지 발을 감싸는 신발의 대표적 유형을 선정하여 제시하였고,

裝身具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머리핀과 머리띠, 안경, 넥타이, 스카프 등의 대표적 유형을 선정한 후, 외양의 주된 특징에 따라 도식화로 그려 제시하였다.

위의 자극물에 대한 頭髮, 신발, 裝身具의 도식화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의미 미분 척도는 응답자가 頭髮, 신발, 裝身具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 척도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심리적으로 반대인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근래는 성역할이 양극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 하에 종래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각기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을 따로 측정

		short	cut	medium	long	permanent	up style
두발 유형	여						
	남						
색상							
		black N1	brown 5YH 1/4	wine 5RP 3/8	purple 5P 3/10	green 5G 3/8	blue 5PB 3/10
신발							
		운동화	loafer	pump	oxford	sandal	boots
장신구	여						
	남						
		선글라스	머리핀	머리띠	넥타이	스카프	이플러

<그림 1> 두발, 신발, 장신구의 도식화

하고 있다¹⁶⁾. 이 측정도구에 의하면, '여성적이 아닌 것은 남성적이다'와 '남성적이 아닌 것은 여성적이다'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여자답다'와 '남자답다'를 단일 차원의 양극단에 위치시키지 않고 두 개의 분리된 차원으로 제시하여 '가장 여자답다' 5점 '가장 여자답지 못하다' 1점, '가장 남자답다' 5점 '가장 남자답지 못하다' 1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통계프로그램으로 기초 통계 외에 집단간의 표본 평균과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유형별 頭髮과 毛髮의 색상

頭髮 형태에 따라 남·여 대학생의 성 역할 지각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 <표 2>에 나타냈다. 頭髮 형태에서는 short와 up style 항목에서, 毛髮 색상에서는 brown, green, blue 항목에서 $p < .05$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頭髮 유형 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short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 평가하였고, up style은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평가를 하였으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평가를 하였다.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여 대학생 모두 short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여자답다'에 긍정 평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long과 permanent는 남·여 대학생 모두 '여자답다'에 강한 긍정평가를 하였고, '남자답다'에는 모두 부정의 평가를 하였으므로 이 두 항목이 '여자답다'를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毛髮 색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brown은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평가를 하였으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좀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green과 blue는 남·여 대학생 모두 '여자답다'에 부정의 평가를 하였으며,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좀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여 대학생 모두 black이 '여자답다' 또는 black이 '남자답다'에 긍정의 평가를 하였고, wine, purple, lemon, orange가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므로 black은 양성성을 가졌고, 暖色 계통은 여성성을 나타내는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여 대학생 모두 green과 blue가 '남자답다' 또는 green과 blue가 '여자답다'에 모두 부정의 평가를 하였으므로 green과 blue는 성 역할을 나타내는 모발의 염색 색상으로는 부적합한 색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발 형태에서는 남·여 대학생 모두 毛髮이 매우 짧은 스타일을 가장 남자답고, 毛髮이 길거나 퍼머넌트는 남자답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매우 짧은 머리는 남성 역할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긴 모발과 brown의 색상을 매우 여자답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오모분석에서 남성적으로 평가된 단서가 짙은 색, 짧은 머리 등이고, 여성적으로 평가된 단서가 긴 머리, 옅은 색 등이라고 한 선행연구(lennon, 199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발 유형

신발 유형에 따라 남·여 대학생의 성 역할 지각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신발 유형 중에서 oxford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신발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16) S. L. Bem,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2 (1974), pp. 155-162. S. L. Bem,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5 (1977), pp. 196-205. 정진경,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 여성학* 3집 (1987), p. 134. 정진경,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5권 (1990), pp. 82-92. 유은희, "여군의 지각된 직무특성과 직무 만족에 관한 상관 연구-성역할(Sex role) 인식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pp. 52-54.

〈표 1〉 頭髮 유형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성역할 지각

頭髮 유형	고정관념	집단 1 (여학생)		집단 2 (남학생)		F-value
		Mean	S.D	Mean	S.D	
Short	여자답다	2.47	1.33	2.29	1.10	17.20
	남자답다	4.16	1.08	4.51	.78	10.58 ***
Cut	여자답다	4.21	.84	4.33	.81	.02
	남자답다	3.05	1.07	3.86	1.77	.14
Medium	여자답다	4.48	.85	4.43	.76	.04
	남자답다	3.13	1.30	2.79	1.15	2.95
Long	여자답다	4.73	.70	4.83	.42	11.91
	남자답다	2.22	1.26	2.04	1.29	.00
Permanent	여자답다	4.39	.89	4.44	.76	3.40
	남자답다	1.92	1.26	1.74	1.21	1.94
Up style	여자답다	4.16	1.05	4.49	.78	14.07 ***
	남자답다	3.87	1.26	3.53	1.31	.72 **

* p<.05, **p<.01, ***p<.001.

t-test : p<.05 수준.

〈표 2〉 毛髮 색상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성역할 지각

毛髮 색상		고정관념	집단 1 (여학생)		집단 2 (남학생)		F-value
색상	Munsell 기호		Mean	S.D	Mean	S.D	
Black	black N'	여자답다	4.03	1.13	3.99	1.02	.58
		남자답다	4.33	1.01	4.31	.86	1.67
Brown	5YR 1/4	여자답다	4.04	1.01	4.30	.87	.01 **
		남자답다	3.68	1.07	3.90	.89	8.08 *
Wine	5RP 3/8	여자답다	3.73	1.28	3.89	1.10	4.12
		남자답다	2.12	1.15	2.03	.95	9.16
Purple	5P 3/10	여자답다	3.37	1.31	3.66	1.62	.69
		남자답다	2.08	2.67	1.75	.88	2.83
Green	5G 3/8	여자답다	2.52	1.23	2.20	1.15	3.11 **
		남자답다	2.07	1.03	2.35	1.26	14.54 **
Blue	5PB 3/10	여자답다	2.80	1.25	2.28	1.16	.36 ***
		남자답다	2.50	1.32	2.68	1.30	.49
Lemon	5Y 7/14	여자답다	3.26	1.34	3.36	1.17	3.69
		남자답다	2.33	1.19	2.50	1.26	.24
Orange	5YR 4/12	여자답다	3.90	6.21	3.52	1.12	3.42
		남자답다	2.29	1.18	2.35	1.16	.21

* p<.05, **p<.01, ***p<.001.

t-test : p<.05 수준.

〈표 3〉 신발 유형에 대한 남·여 대학생의 성역할 지각

신발 유형	고정관념	집단 1 (여학생)		집단 2 (남학생)		F-value
		Mean	S.D	Mean	S.D	
운동화	여자답다	2.37	1.04	2.70	1.58	.18
	남자답다	3.64	1.12	3.89	1.24	2.17 *
Loafer	여자답다	4.01	.95	3.88	.88	.01
	남자답다	1.96	.91	2.74	1.15	9.35 ***
Pumps	여자답다	4.63	.73	4.82	.46	25.66 ***
	남자답다	1.54	3.98	1.16	.51	3.84
Oxford	여자답다	2.29	1.07	2.30	1.01	1.43
	남자답다	4.18	4.40	4.30	.82	3.15
Sandal	여자답다	4.62	.79	4.81	1.28	.59
	남자답다	1.43	.86	2.01	1.10	18.45 ***
Boots	여자답다	3.37	1.46	3.39	1.17	15.29
	남자답다	1.99	1.22	2.48	1.13	.19 ***

* p<.05, **p<.01, ***p<.001.

t-test : p<.05 수준.

살펴보면, 운동화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loafer와 sandal, 그리고 boots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좀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pumps는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운동화와 oxford는 ‘여자답다’에는 남·여 대학생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특히 oxford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강한 긍정의 평가를 하였고 ‘여자답다’에는 부정의 평가를 하였다. loafer와 pumps, sandal은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pumps와 sandal은 ‘여자답다’에 강한 긍정의 평가를 하였고 ‘남자답다’에는 부정의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여 대학생들은 oxford 유형의 신발이 남성 역할을 나타내며, pumps와 sandal 유형의 신발은 여성 역할 상징의 단서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용의 pumps나 loafer는 ‘無性的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범주에 속한다¹⁷⁾’고 한 선행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서 우리나라 남·여 대학생이 신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裝身具 유형

裝身具 유형에 따라 남·여 대학생의 성역할 지각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裝身具 유형에서는 모든 항목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裝身具 유형 중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17)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pp. 236-245.

〈표 4〉 장신구류에 대한 남·여 대학生の 성역할 지각

장신구 유형	고정관념	집단 1 (여학생)		집단 2 (남학생)		F-value	장신구 유형	고정관념	집단 1 (여학생)		집단 2 (남학생)		F-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목걸이	여자답다	4.45	.85	4.62	.64	7.14 **	머리핀	여자답다	4.42	.89	4.63	.70	8.96 **
	남자답다	2.22	1.33	2.43	1.33	.02		남자답다	1.42	.76	1.27	.58	12.57 *
반지	여자답다	4.49	.83	4.66	.67	8.58 **	머리띠	여자답다	4.30	1.01	4.57	.72	14.34 ***
	남자답다	3.12	1.32	3.67	1.17	2.57 ***		남자답다	1.32	.74	1.64	.94	25.78 ***
귀걸이	여자답다	4.17	1.14	4.49	.78	7.47 ***	넥타이	여자답다	2.45	1.16	2.09	.91	14.08 ***
	남자답다	2.22	1.20	2.77	1.13	4.81 ***		남자답다	4.11	1.15	4.69	1.49	.23
팔찌	여자답다	4.21	1.01	4.46	.71	6.98 **	스카프	여자답다	4.26	.94	4.43	.80	3.51 *
	남자답다	2.61	1.30	3.04	1.24	4.60 ***		남자답다	1.71	1.05	1.95	1.02	.10 **
안경	여자답다	3.11	1.20	2.77	.96	5.25 ***	머플러	여자답다	4.30	1.51	4.17	.84	1.69
	남자답다	3.12	1.16	3.13	.99	5.43		남자답다	2.42	1.24	2.81	1.20	1.95 ***
선글라스	여자답다	3.79	1.00	3.84	.90	2.12							
	남자답다	3.39	1.16	3.66	1.05	.81 **							

* p<.05, **p<.01, ***p<.001.

t-test : p<.05 수준

살펴보면, 목걸이, 귀걸이, 팔찌, 머리핀, 머리띠, 스카프는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긍정의 평가를 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한 긍정의 평가를 하였다. 반지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남학생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귀걸이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부정의 평가를 하였으며, 여학생이 좀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팔찌는 '남자답다'에 여학생은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남학생은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간의 평가를 하고 있었다. 머리핀, 머리띠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부정의 평가를 하였는데, 머리핀은 남학생이 좀 더 강한 부정의 평가를 하였고, 머리띠는 여학생이 좀 더 강한 부정의 평가를 하였다. 넥타이는 '여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부정의 평가를 하였고,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강한 부정의 평가를 하였다. 안경은 '여자답다'에 여자 대학생은 비교적 긍정의 평가를 하였고, 남자 대학생은 부정의 평가

를 하였다. 선글라스는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안경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학생에게 더 많이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글라스의 경우 '여자답다'와 '남자답다'에 남·여 대학생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므로 선글라스는 양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여 대학생 모두 머플러는 '여자답다'에 긍정의 평가를 하였고, 넥타이는 '남자답다'에 긍정의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머리핀, 머리띠를 '여자답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더 높으므로, 이들 항목에 대해 보다 엄격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남자답다'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裝身具 중 귀걸이와 팔찌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므로, 다른 장신구에 비해

보다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여 대학생 모두 넥타이를 남성 역할을 나타내는 상징적 단서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스카프와 머플러는 여전히 남성보다는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단서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여 대학생의 「~답다」에 대한 성 역할 지각에 관한 연구를 두발, 신발, 장신구를 중심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에 소재하는 남·여 대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통계프로그램으로 기초 통계 외에 집단간 표본 평균과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유형별 頭髮과 毛髮 색상에 대한 남·여 대학생들의 성역할 지각을 보면, 남·여 대학생 모두 매우 짧은 머리를 '남자답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머리가 길거나 퍼머넌트는 남자다운 차림새로는 부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매우 짧은 머리가 남성 상장의 전형적 단서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발머리, 긴 머리, 퍼머넌트의 頭髮 형태와 brown, wine, purple, lemon, orange와 같은 난색 계통의 모발 색상은 남·여 대학생 모두 '여자답다'고 인지하였고, 그 중에서 긴 머리와 brown의 색상을 여성답다고 높게 평가하였으므로, 긴 머리와 brown의 색상이 여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단서로 남·여 대학생에게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毛髮 색상 중에서 black의 경우는 '여자답다'와 '남자답다'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양성성을 나타내는 색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신발 유형에 대한 남·여 대학생들의 성역할 지각을 보면, 남·여 대학생 모두 운동화와 oxford를 남자답고, pumps, loafer, sandal은 여자답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oxford가 남성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단서로, pumps와 sandal이 여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서로 남·여 대학생에게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裝身具 유형에 대한 남·여 대학생들의 성역할 지각을 보면, 남·여 대학생 모두 목걸이, 귀걸

이, 팔찌, 머리핀, 머리띠, 스카프, 머플러를 여자답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넥타이는 남자답다고 인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머리핀, 머리띠, 스카프는 남성다움을 나타내는데 매우 이질적인 요소로서 여성 역할을 대표하는 장신구이고, 넥타이는 남성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단서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남·여 대학생들은 성 역할에 대한 남성다움의 상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단서로 짧은 머리와 oxford 신발, 넥타이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여성다움을 대표하는 단서로 긴 머리와 brown의 색상, 머리핀, 머리띠, 스카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頭髮, 신발, 裝身具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자답다'와 '남자답다'에 대한 고정 관념적 시각은 두발과 장신구에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났고, 신발 유형에 대한 고정관념적 시각은 여자 대학생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으므로 頭髮, 신발, 裝身具류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은 각각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유은희(2001). "여군의 지각된 직무특성과 직무 만족에 관한 상관 연구-성역할(Sex role) 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현주, 임영주, 황영미(2001), *토탈 뷰티 코디네이션*, 서울: 일진사.
- 이경순, 김희섭(1998).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 이순홍(2003).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 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권 1호.
- 정진경(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3집.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5권.
- 차진희(1994). "Body image, Genderlogy, 의복 성격체감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대전, 충남북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컬러 코디네이션(女) (2001). 서울: 라사라패션정보.
- 컬러 코디네이션(男) (2001). 서울: 라사라패션정보.
- 패션전문 자료사전 (1997). 서울: 한국사전 연구사.
- 한명숙(1987). "한국 복식 현상의 구조적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명숙(2003). "「~답다」에 내재된 한국 복식 문화의 속성-의복에 표현된 성역할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권 1호.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2.
- Bem, S. L(1977).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5.
- Cho Emily and Grover Linda(1978). *Looking Terrific: Express yourself through the Language of Clothing*. New York: G. P. Putnam's sons.
- Horn, Marilyn J. and Gurel, Lois M(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Houghton Mifflin Company.
- Kaiser, Susan B(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Lennon, S. J(1990). "Clothing and Changing Sex roles: Comparis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8, No. 3.
- Roach, Mary Ellen and Eicher, Joanne B(1973). *The Visible Self: Perspective on Dres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